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3.2 | Vol. 225호

#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 법왕사 만불전 · 본당 단집 조성 모연문



단집은 법당에 모신 불보살을 장엄하는 하나의 장치로 불상 위에 또 하나의 집을 지어 올린 것으로 마치 집을 겹쳐 지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단집이라 일컫습니다.

수천 조각의 목재를 정교하게 다듬어 짜 맞춘 극히 섬세하고 화려한 단집은 예부터 불전이나 궁전에만 설치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만큼 그 상징성과 의미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단집은 두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부처님 머리 위에 설치한 일종의 장엄구인 보개(寶蓋, 또는 天蓋)로서의 상징성이며, 다른 하나는 법당을 불국정토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즉, 단집은 불국정토의 궁전 모습을 본떠서 만든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법당에 단집을 조성함으로써 법당은 비로소 불국정토가 되며 불보살님의 위엄과 권위를 극대로 장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왕사에서는 큰법당 본존불 위에 단집을 조성하여 법당을 더욱 여법하게 조성할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원공당 정무 대종사 각령단[覺靈壇] 조성



대한불교 조계종 대종사 원공당 정무 큰스님은 법왕사의 회주로 주석하시다가 지난 2011년 입적하셨습니다. 큰스님은 한국 현대 선불교의 대표적 선사인 전강스님의 법맥을 이으시고 이를 법왕사에 전해주신 분입니다.

법왕사에서는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정법 수행 풍토를 드높이고자 큰스님의 각령단을 본당에 조성코자 하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각령이란 입적한 고승(高僧)의 혼령(魂靈)을 높여 이르는 말로 진영을 봉안하여 단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04 깨침의 향기  
사랑과 순종이  
화목한 가정의 원천 · 원공당 정무 대중사
- 08 비슬산방  
어려울 때일수록 참 나를 찾자 · 실상 주지스님
- 10 법왕논단 | 종교와 철학  
생각이 선하면 인성도 착해진다 · 본원스님
- 14 불교상징의 세계 VI  
전(殿) · 각(閣) · 당(堂)은 사찰 건물의 서열 상징 · 조명래
- 18 불교와 세시풍속  
입춘(立春)과 대보름, 그리고 삼재풀이
- 22 명찰순례  
한국 불교의 승맥을 잇고 있는, 송광사
- 26 삶의 향기  
사랑을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 28 법왕사소식
- 29 법왕사게시판
- 32 해오름소식
- 32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수성 라 00017 | 발행처\_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  
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_불기 2557(서기 2013)년 02월 01일 발행 | 통권\_225호 |  
종무소\_T. (053)766-3747 · 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  
인스님 | 편집위원\_모도, 영일, 성해, 정명, 상철, 자윤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 사랑과 순종이 화목한 가정의 원천

원공당 정무 대종사



어진 마음, 본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넉넉하고 한쪽으로 기울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마음도 나빠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평상심 즉 어진 마음, 본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옥에 가도 끄떡없습니다.  
 부처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런 우매함 때문에 가정은 화목하지 않고 결국 국가적,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을 제대로 꾸릴 수가 없어, 또는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낙태입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간 200만명이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일등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여러 가지로 세계에서 제일인 것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자랑할 만합니다. 하지만 ‘낙태’는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으로 세계 제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단체가 연합해서 낙태방지법을 만들자고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럼 가정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곳으로 되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착한 마음, 봉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효도하는 마음. 이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칭찬하는 마음, 어머니 같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부처님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좋은 것

이지만 이것도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보살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만드는 데는 부족합니다.

가정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어머니는 식모다’, ‘아버지는 머슴이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順從)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하나의 식모 같은 존재입니다. 매일 밥하고 청소를 합니다. 아버지 또한 가정을 위해 매일 일을 합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식모마음’, ‘머슴마음’으로 살면 우리 가정은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기의 역할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가정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주병’, ‘왕자병’은 우리 가정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에서

“둘 이상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자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서, 하나는 위에 있어 명령하고, 하나는 밑에 있어서 복종하는 것이 근본문제이다”라고 했지만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머리가 되고 하나는 꼬리가 되어야 그 가정은 화목해집니다. 만약 부부 둘 다 머리가 되거나 둘 다 꼬리가 되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뒤로 갑니다. 그래서 부부는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서로 서로에게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의 화목이라는 원대한 꿈을 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는 꼬리가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이 머리가 되어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머리가 되어 가정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해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노인문제입니다. 노인 열 명 가운데 세 명이 노망(老妄)이 들고 치매에 걸린다고 합니다. 솔직히 치매

나 노망은 생활습관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이 들어 노망에 걸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젊을 때의 행동이나 사고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사사건건 남의 일에 참견하고, 모든 일을 자기 독단적으로, 제멋대로 처리하는 사람이 노망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융통성이 없는 고집불통인 사람이 바로 치매 후보자들입니다.

치매나 노망에 걸린 노인이 집안에 있으면 그 집안은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치매환자는 고집불통인데다 행동도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아 웬만한 인내력으로는 간병조차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결국 관광지에 내다버리거나 요양원에 보내버립니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 자녀포기각서를 쓰고 '나 몰라라' 합니다. 더욱 심한 경우는 늙은 부모님을 죽여버리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 의학으로도 딱히 치료할 어떤 묘방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족의 사랑과 이해가 최선의 치료책인 것입니다. 사랑과 이해가 '의학적인 치료'에 도움이 안될지는 모르지만 치매환자를 보는 눈은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치매환자는 우리를 보고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의 행동 하나 하나에 속상해 하고 짜증을 냅니다. 결국 속상해 하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속상해 하는 사람만 병이 납니다. 이걸 환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손해인 줄 알면서 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치매환자를 돌볼 때 현상황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발심(發心)' 이고 도(道)인 것입니다.

# 어려울 때일수록 참 나를 찾자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간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계관의 한가운데 서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나'를 버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불평하고 남을 원망합니다. 권력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다 결국 철장신세를 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힘없는 어린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꾸만 '나'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 불교는 인간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불교에서는 일체(一切)가 십이처(十二處)에 포섭된 것이니, 그것은 곧 눈과 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감, 의지와 범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이 열 두 가지에 거뜬히 포섭(包攝)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교는 인

● ● 세상이 탐욕에 휩싸일수록 인간이 인간을 멸시하는 풍조는 자꾸만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또 '나'를 벗어나려는 이 같은 풍조로 결국 우리는 번뇌의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잘못되고 내가 못 사는 것도 결국 나로 인한 것입니다. 나의 심신(心身)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시각각으

로 변해 가지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나인 것입니다. 나는 육체와 정신의 본체요, 생명의 본질(本質)과 같은 것입니다.

또 '남'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내 자신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남의 소유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나의 소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나'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란 존재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 분수를 지키면서 나를 찾을 때는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나로 인해 생멸(生滅)되는 것입니다.

●●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일체 만물만생은 모두가 평화스럽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질 못합니다. 평화스럽게, 여여(如如)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물질 세계에 전전공공하니까 더 많은 번뇌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는 욕심은 결국 지혜를 흐리게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마음이란 게 볼 수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먹기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관여가 되고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 『잡아함경(雜阿含經)』에는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此有故彼有), 이것이 생함으로써 저것이 생한다(此生故彼生). 이것이 없음으로써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이 멸한다(此無故彼無 此滅故彼滅).” 고 했습니다.

나는 세계 속에 던져진 하나의 인간으로 세계에 영향을 끼치지만 동시에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의 실체(實體)에만 집착하고, 그런 아집(我執)으로 말미암아 대립, 분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덧없이 자기과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대해 감사함을 느낄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 인간의 불성(佛性)의 씨는 다 똑 같습니다. 단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생각이 선하면 인성도 착해진다

본원스님 / 토굴 정진중



육근(六根)이 객관에 고달리지 않아 담연하면,  
행하고 머무는 등의 일체처 일체시에 걸림이 없고,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가지 법도 함께 쉬어버린다.



대기(大氣)현상을 인사(人事)에 비유하면 사람의 성향이 되는 성미(性味), 성정(性情), 성질(性質) 등이 된다. 통상적으로 '타고난 기와 질에 따라 다른 것이 성품(性品)' 이기에 선천적으로 받아 태어나는 면이 크긴 하지만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당대의 정신적 지주였던 도선국사가 '비기(秘記)' 에서 말하고자 한 것이다. 타고난 기(氣)가 청(淸)하더라도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면 악습에 젖어 사는 하찮은 범부가 되어 화(禍)를 자초하고, 비록 타고난 기가 탁(濁)하더라도, 자숙하고

적선하며 근신 수행하면, 탁한 물이 여과의 과정을 거쳐 점차 맑아지듯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복이 되는 양질화(良質化)로 변한다는 것이 도선국사의 말 속에 지닌 뜻일 것이다.

“사람의 운명이란 기질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이라고 한 도선의 인과론적(因果論的) 기질을 단계별로 요약 정리하자면 이러하다.

‘기질-성향-생각(마음)-행동-습관=운명’ 이라는 등식(等式)의 성립이 가능함은 태어나면서 받아난 기(氣)의 질(質)이 가지는 품성은 같은 상황과 조

건일지라도 저마다 느끼고 받아들이는 바가 다를 수가 있다. 행동은 생각에서 일으킨 몸의 움직임이니 알게 모르게 버릇이 되어 익히고 습관화되어 길들여지고 몸에 배인 것이다.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옳든 그르든, 바른 길이든 그른 길이든, 싫든 좋든 그게 곧 그 사람의 운명과는 같은 작용을 하는 기의 성향이다. 사주상 청(淸)한 기를 받았다면 그 품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배양하고 노력해야 한다. 탁(濁)한 기는 벗고 씻는 차원에서 적선과 적덕을 통한 수신(修身)에 힘쓸 일이다. 이처럼 청·탁의 기는 달리 받아내는 것이지만 사람을 바르게 하고 참되게 만드는 것은 청·탁의 기에 내포된 질적(質的)인 성향에 따라 수시로 일어나는 선악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

성악설·성선설을 아우르며 동시에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을 논하는 주이적 일원론(主理的 一元論)과 주기적 일원론(主氣的 一元論)이 결국 하나로 되는 이기적 이원론(理氣的 二元論)마저 대해(大海)의 불법(佛法)으로 흡수되는 것을, ‘상황과 조

건에 따라 선악의 마음이 일어나는, 오직 마음이 차지하는 전반적인 영역의 적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학설은 불교의 고유 사상이자 영원한 진리인 ‘연기론 연기법(緣起論 緣起法)’을 이론적 근거로 삼아, 선악이며 이와 기의 문제를 다룬 것에 지나지 않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반응하며 일어나는 선악의 마음을 살피고 다스려서 선량한 기질의 품성과 양질의 인격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도(正道)의 길 즉, 불법을 믿고 닦으며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이다.

### 사고 및 행동이 사람의 운명 결정

도선이 ‘비기’에서 말한 ‘기질적 성향...’이라 함도 이런 뜻에서이다. 도선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견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며, 그에 대한 기질적 성향이 갖는 사고방식 및 행동방식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이라 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리라.

도선비기의 ‘기질적 성향’이란 일상에서 늘 접하고 느끼며 경험하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유자(儒者)들의 학

설보다 훨씬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에 부합하는 일임을 주의 깊게 살피면 쉽게 알 수 있다. 곧 희노애락을 오가며 우리 삶의 저변에 주요 인자(因子)로 작용하는 동적(動的)이자 정적(靜的)인 기(氣)의 상태를 이르는 것이다.

예컨대, 똑 같은 상황과 조건임에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에 따라 같은 상황과 조건임에도 잠이 오는 이가 있고, 밤새 잠 못 이루는 이가 있는가 하면, 같은 상황과 조건에서 용서가 되고 되지 않는 이가 있으며, 같은 상황과 조건에도 행복해 하기도 하고 혹은 불행을 느끼며, 달리 희망을 갖기도 하고 쉽게 좌절, 낙심하는 것은 저마다 품격(品格)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생체 에너지, 기(氣)가 지니는 고유한 품성(品性)의 성향(性向)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걱정도 팔자요’ 할 때 타고난 사주팔자의 기운(氣運)이거나 후천적 기(氣)의 흐름인 품성에 따라 같은 상황과 조건에서도 불안해 하며 걱정하는 이가 있고, 걱정 따윈 하지

않는 이가 있음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다. 또 ‘그 집에 들어간 며느리가 심성(心性)이 고와 집안이 잘 된다지’, ‘며느리가 심덕(心德)이 좋아 가정이 늘 화목하다지’, ‘혼기에 찬 딸 아이는 성정(性情)이 급한 게 흠이야’, ‘그 사람 성미(性味) 한번 참 급하더군’, ‘물 불 안가리는 그 성질은 예전 그대로야’ 하는 등등의 이런 언어적 관습이 가지는 속성에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 기질이 지닌 양질(良質) 내지는 악질(惡質)의 요소가 동(動)하는 성향에서 기인(起因)한 품성, 곧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성(性)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선악의 마음인 체(體)를 바탕으로 하되 본체(本體, 본성)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에서 나타나는 기의 질은 사람마다 다소 다른 것을 두고 도선은 ‘성향’이라 했다. 곧 ‘성질’, ‘성품’, ‘성격’을 비기(秘記)의 은어적 방식으로 ‘기질적 성향이 있을 뿐’이라 함



은 바로 ‘정도의 정사(正思)’ 차원에 입각한 문제이다. 즉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선악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으며, 올바르게 생각을 지킬 수 있느냐가 곧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도선비기’의 가르침은 생각할수록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 행실에 따라 귀천이 갈라짐

부처님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귀하고 천함을 받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실에 의해서 귀해지기도 하고 천해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 말씀은 생각하는 마음이 옳고 바르면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행실 또한 옳고 바르지만, 생각하는 마음이 거칠고 그릇되면, 그림자 형상을 따르듯 몸과 말과 뜻이 짓는 행실 또한 거칠고 바르지 못하기 마련이다.

사람은 무엇이든 익히는 대로 길들여지는 습관의 동물이기에,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마음을 바탕으로 한 체성(體性)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오직 스스로가 짓는 행위에 따라 고(苦)·낙(樂)이 수반되는 고로, ‘바르게 사유함의 정사(正思)’에 있어서는 저 보편적 진리인 인과론

인과법에 근거하고 있음이다.

선종의 지침서격인 『선림보훈집(禪林寶訓集)』에는 이런 글이 있다.

“숫돌과 멧돌은 닳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끝내 다 닳아 없어지고 나무는 크고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된다.”

마치 흰 천에 검은 물감을 들이면 검은 색이 되고, 붉은 물감을 들이면 붉은 색이 되듯이, 사람의 본성은 반드시 악이라고도 선이라고도 할 수 없는, 어느 곳에도 물들지 않았다.

단지 선·후천의 기(氣)의 질(質, 성질·성품의 질)에 따른 행위가 거듭되면서 하나의 습관에 길들여진다.

사람은 곧 품성(品性, 품격·인격)에 따라 고귀하기도 하고 천박하기도 하는 까닭에 행위의 선악에 의한 인품의 개연성은, 바로 불교의 연기법적 마음의 체성(體性)인 심법(心法)의 이치를, 후대의 유자(儒者)들이 내용적으로 도용했거나 각색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다름 아닌 성악설·성선설이다.



# 전(殿) · 각(閣) · 당(堂)은 사찰 건물의 서열 상징

조명래 /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사찰에서 대웅전을 비롯한 여러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공간은 수미산 우주론에 서는 수미산정에 위치한 도리천을 상징한다. 도리천에서 중심이 되는 건물은 바로 제석천이 살고 있는 선견성(善見城)이다. 도리천에는 선견성 말고 중심이 되는 건물이 한 채 더 있는데 바로 선법당(善法堂)이다. 선법당은 제석천을 제외한 32천신들이 모이는 건물로 선견성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도리천에서는 선견성과 선법당을 중심으로 천신들이 거주하는 건물이 여러 채가 있다. 도리천과 같이 사찰에서도 대웅전을 중심으로 남쪽에 누각이 있고 좌우에 걸쳐 지장전이나 삼성각 또는 스님들이 거처하면서 수행하고 공부하는 공간인 심검당이나 설선당 등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선견성이 제석천의 공간이라면 대웅전은 부처님의 공간이다. 예전에는 대웅전에 불단인 수미단을 모실 때는 건물의 정중앙에 모셨다. 불국사 비로전이나 김천 수도암의 대적광전(大寂光殿)에서 지금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중기에 일어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병화(兵禍)로 인해 전국에 산재한 사찰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전후 사찰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스님들과 소수의 사람들에게 허용해 오던 법당 출입을



청암사 육화료

일반 신도에게도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어간에서 3분의 2되는 지점에 불단을 배치하였으며, 근래에는 불단을 뒷벽과 붙이기에 이르렀다. 비록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대웅전은 부처님만의 신성한 공간이라는 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 불보살을 모신 공간, 전(殿)

중국문화에서는 성인은 곧 군왕과 동등하기 때문에 최고의 위계를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인과 군왕이 거처하는 건물의 명칭을 ‘전(殿)’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공자를 모신 곳을 ‘대성전(大聖殿)’이라 하고, 조선시대 임금이 거처하던 경복궁의 근정전이나 사정전, 강녕전이 그렇고, 사찰에서는 대웅전이나 대적광전, 관음전, 지장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 다음으로 현인들이 거처하는 건물을 ‘각(閣)’이라 한다. 각이란 명칭은 궁궐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며, 사찰에서는 삼성각이나 독성각·칠성각·산신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문화권의 건축물에서 ‘전과 각’이 최상위에 해당하여 이를 합해 ‘전각(殿)

閣)이라고 호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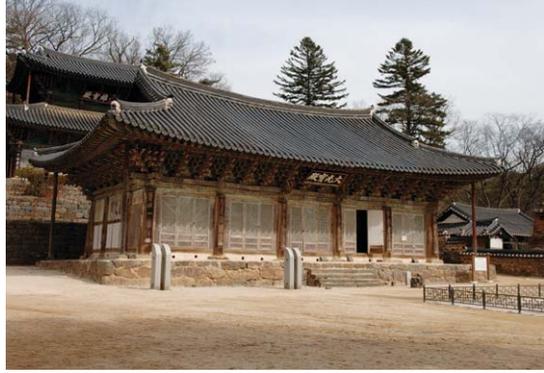
전각은 그 집에 거처하는 사람의 칭호와도 관련성이 있다. 황제를 뜻하는 폐하나 임금을 뜻하는 '전하(殿下)와 '각하(閣下)가 그것이다. 예전에 궁궐의 장엄한 건축물의 기단을 '계(階) 또는 '폐(陞)라고 하였는데 여러 층의 계단에서 유래되었다. 여기에서 '폐하(陛下)라는 황제에 대한 칭호가 나왔으며, 그리고 신하가 전각 아래에서 임금을 부른다는 의미에서 '전하'라는 칭호가 나왔다. 얼마 전까지 대통령에 대한 호칭으로 쓰였던 각하는 전하에 준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 당(堂)은 스님들의 거처

사찰에서 전각과 다른 형태의 건물이 누(樓)와 당(堂)이다. 사찰에서 '전'은 '불보살을 모신 공간'이고, '각'은 '불보살보다 낮은 위계의 존재를 모신 공간'이며, 당은 스님들이 거처하는 공간으로 이해하면 된다.

전각은 폐쇄된 공간인 반면, 누는 2층 또는 다층구조의 개방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누는 2층 이상의 다층건물로 예전에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품격이 높은 건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이란 명칭을 붙여 '누각(樓閣)'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전각과 누각은 절대 권력의 왕권을 상징하거나 부처님이나 공자님과 같은 성인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곳이다. 그래서 궁궐에 단청장식을 하여 임금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거나 사찰에 단청으로 장엄하여 불보살이 머무는 곳임을 나타내었다.



마곡사 대웅보전



동화사 인악당



청암사 진명각

누는 해탈문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아래층은 대웅전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사용하고 위층은 법회와 같은 행사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또 하나의 개방형 건물로는 종루 또는 종고루가 있다. 여기에 범종·법고·목어·운판의 불전사물을 걸어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1층 구조일 경우에는 범종각, 2층 구조일 경우에는 범종루라고 부른다. 소리를 내는 도구인 범종·법고·목어·운판의 불전사물은 그 성격상 누와 같은 개방형 건물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당은 당우의 줄임말이다. ‘당우(堂宇)’란 ‘정당(正堂)과 옥우(屋宇)’라는 뜻이다. ‘큰 집과 작은 집을 일컫는 말’로서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찰에는 심검당·심우당·적묵당·육화당 등과 같이 ‘당’이란 이름을 붙여있는 건물이 많이 있는데, 건물의 위치나 역할 등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당’이란 세속에서 아파트의 동(棟)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일반사람들이 거처하는 공간인 당우에는 단청을 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스님들이 거처하면서 참선을 하거나 경전을 공부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심검당·심우당·적묵당·육화당 등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심검당은 ‘지혜의 칼을 찾는 집’이란 뜻이다. 심검당에서 ‘검(劍)’은 마지막 무명(無明)의 머리카락을 단절하여 부처의 혜명(慧明)을 증득하게 하는 취모리검(吹毛利劍)을 상징한다.

적묵당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뜻하는 ‘능인적묵’에서 유래된 말이다. 심우당은 심우도·심우도에서 유래되었다. 심우도는 방황하는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고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야생의 소를 길들이는 것에 비유하여 심우·견적·견우·득우·목우·기우귀가·망우존인·인우구망·반본환원·입전수수의 10단계로 그린 그림이다.

육화당은 육화경에서 유래되었다. 육화경(六和敬)이란 보살이 중생과 화경(和敬)하여 중생과 같이하는데 필요한 동계화경(同戒和敬)·동견화경(同見和敬)·동행화경(同行和敬)·신자화경(身慈和敬)·구자화경(口慈和敬)·의자화경(意慈和敬)의 6가지를 말한다.



# 입춘(立春)과 대보름, 그리고 삼재풀이

## ○○ 입춘

입춘(立春)은 24절기 가운데 첫 번째이다. 음력으로는 정월 절기이며 양력으로는 2월 4일쯤이다. 태양의 황경이 315도일 때이며 대한(大寒)과 우수(雨水) 사이에 있다.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지만 아직 추위가 강하다. 입춘 전날이 절분(節分)인데 이것은 철의 마지막이라는 뜻이다. 이 날 밤을 해넘이라고 부르고, 콩을 방이나 문에 뿌려서 귀신을 쫓고 새해를 맞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입춘을 마치 연초(年初)처럼 본다. 입춘 15일간을 5일씩 3후(候)로 갈라서, 첫 번째 5일은 동풍이 불어서 언땅을 녹이고, 다음은 동면하던 벌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지막 5일은 물고기가 얼음 밑을 돌아다닌다고 하였다.

지방에 따라 입춘날이나 대보름 전 날에 베푸는 '아홉 차리' 라는 민속이 있다. 가난하지만 근면하게 끈기 있게 살라는 교훈적인

세시민속이다. 이날은 각자 소임에 따라 아홉 번씩 부지런하게 일을 되풀이하면 한 해 동안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받는 줄 알았다. 글방에 다니는 아이면 천자문(天文文)을 아홉 번 읽고 나무꾼은 아홉 짐의 나무를 하며 노인이면 아홉 발의 새끼를 쫓다. 계집아이들은 나물 아홉 바구니를, 아낙들은 빨래 아홉 가지, 길쌈을 해도 아홉 바디를 삼고 실꾸리를 감더라도 아홉 꾸리를 감는다. 심지어는 밥을 먹어도 아홉 번, 매를 맞더라도 아홉 번을 맞았다. 굳이 아홉 번이라 함은 많이 했다는 의미이며 우리 조상들의 숫자 개념상 최고의 양수(陽數)이기 때문이다.

또 적선공덕행(積善功德行)이라 하여 입춘날이나 대보름날 전야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착한 일을 꼭 해야 연중 액(厄)을 면한다는 적선공덕(積善功德)의 복지(福祉)민속도 있었다. 이를테면 밤중에

몰래 냇물에 가 건너다닐 징검다리를 놓는 다든지, 가파른 고갯길을 깎아 놓는다든지, 다리 밑 동냥옴막 앞에 밥 한 술 지어 갖다 놓는다든지, 행려병자가 누워있는 원(院) 문전에 약탕을 끓여 몰래 놓고 온다든지 하는 것 등이다.

또 입춘은 새해를 상징하는 절후여서 입춘방(立春榜)·첩(帖) 붙이기 등 여러 행사가 있다.

입춘시가 들 때 대문, 중문, 곳간문, 방문이나 대들보에 ‘春到門前增富貴(춘도문전증부귀)’, ‘春光先到古人家(춘광선도고인가)’, ‘立春大吉(입춘대길)’이나 ‘立春大吉 建陽多慶(입춘대길 건양다경)’, ‘國泰民安 家給人足(국태민안 가급인족)’ 등 입춘방을 써 붙여 복을 빌기도 한다.

특히 입춘 전후에 받아 둔 빗물을 입춘수(立春水)라고 하는데 이 물로 술을 빚어 마시면 아들 낳고 싶은 서방님의 기운을 왕성하게 해준다고 했다.

또 입춘 때는 농사의 풍년을 비는 선농제(先農祭)를 지내기도 했다. 입춘 후 첫 해일(亥日)에 지내는 선농제란 서울 동대문 밖에 있는 제기동(祭基洞)과 전농동(典農洞)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곳에서 베풀어졌던 제사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농사를 다스리는 신(神)인 신농(神農)에게 풍년을 비는 제사는 신라 때부터 있어왔다고 한다. 선농

제와 함께 입하(立夏) 후 첫 해일에는 중농제(中農祭), 입추(立秋) 후 첫 해일에 후농제(後農祭) 등 모두 세 차례의 제사를 지냈는데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는 이 동대문 밖에 선농단을 짓고 선농제만을 지내왔던 것이다.

또 입춘날에 먹는 시식(時食)으로 오신채(五辛菜)라는 것이 있다. 다섯 가지 매캐한 모듬나물이란 뜻인데 시대에 따라, 지방에 따라 오신채의 나물 종류는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파, 마늘, 자충이, 달래, 평지, 부추 그리고 미나리의 새로 돌아난 싹이나 새순 가운데 다섯가지 나물 즉, 노랑고 붉고 파랑고 검고 하얀색의 나물을 골라 무쳤다.

오신채는 노란 색의 싹을 한복판에 무쳐놓고 동서남북에 청, 적, 흑, 백의 사방색(四方色)의 나물을 배치한다. 이것은 임금을 중심으로 하여 사색당쟁을 초월하라는 정치화합의 의미가 부여돼 있었던 것이다. 또 일반 백성들도 가족의 화목을 상징하고 인, 예, 신, 의, 지를 증진하기 위해 오신채를 먹었다고 한다. 또 오신채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느끼는 다섯 가지 괴로움, 맵고 쓰고 쓰는 등 인생오고(人生五苦)를 오신채를 먹음으로써 참으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한다.

## ◎◎ 삼재

새해나 입춘이 되면 절 주변에서 삼재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그러나 삼재란 용어에 대해 많은 불자들이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 삼재에는 두 가지, 즉 불교에 유래하는 것과 민속적인 것이 있다. 불교에서는 수재와 태풍, 화재의 세 가지를 삼재(三災)의 재난으로 부른다. 또 삼재를 소삼재(小三災)와 대삼재(大三災)로 나누기도 한다. 소삼재는 병난재(兵難災), 병역재(病疫災), 기근재(饑饉災)를 말하고 대삼재는 수재(水災), 화재(火災), 풍재(風災)를 말한다.

인간들의 마음이 포악해져서 서로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마음이 치성해지면 가뭄이 계속되어 땅은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메마른 곳이 된다. 이때를 기근재라고 한다. 다음에는 난치의 병들이 생겨나서 생명을 앗아 가는 역질재(疫疾災)가 온다. 인간의 마음이 더욱 몹쓸 것으로 변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대량 학살의 시대, 즉 전쟁의 시대가 온다. 이런 시대를 병난재라고 한다.

대삼재 중 화재는 인간의 멸망을 앞둔 시기에 나타나는 극한의 가뭄과 태양의 열기를 말한다. 화재의 시기가 지나면 수재의 시기가 온다. 이때는 하늘이 열린 듯 매일

폭우가 쏟아져 지상의 모든 것을 휩쓸어 간다. 수재의 시대가 지나고도 인간의 마음이 계속 포악해지면 다음에는 풍재의 시대로 접어든다. 풍재의 시대는 폭풍과 태풍과 돌풍이 모든 것을 쓸어 간다. 이상이 대삼재이다.

민속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삼재란, 사람의 일생 중에서 찾아온다는 불길한 운세를 말한다. 이는 중국의 오행사상에 기인한 것으로써 소위 십이지를 셋씩 묶어 3년 동안 나쁜 운이 돌아온다는 원리이다. 즉 사람의 운이 각 3년씩 12년을 주기로 바뀌어 인생에 이주 좋은 운과 이주 나쁜 운이 12년마다 한 번씩 오게 된다. 이 중 나쁜 시기에 접어드는 것을 흔히 말하는 삼재라 한다.

그렇다면 왜 삼재가 정기적으로 돌아오는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오행사상으로 보면 사유축(巳酉丑)은 오행상 금(金)에 해당하는데 금의 기운은 십이운성으로 볼 때, 해자축(亥子丑)년에 제일 약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재가 드는 해는 병지(病地)이고, 그 다음해는 사지(死地)이며, 날삼재가 드는 해는 장지(葬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찾아오는 삼년을 가리켜 삼재라고 한다.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의 세계관에서 말하는 삼재설과 민속적인 삼재설이 혼용되어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중요시하는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삼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착하고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 ○○ 정월대보름

음력 정월 대보름날은 한자로는 ‘상원(上元)’이라고 한다. 상원이란 ‘중원’(음력 7월 15일, 백중)과 ‘하원’(음력 10월 15일)에 대칭되는 날로 첫 보름달이 뜨는 대보름날을 말한다.

대보름날에 행해지는 풍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달집태우기다. 달집태우기는 대보름달이 떠오를 때 생솔가지 등을 쌓아올린 무더기에 불을 지르며 노는 풍속으로 달맞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청년들이 풍물을 치며 각 가정의 지신밟기를 해주고 나서 짚이나 솔잎을 모아가지고 오는 수도 있고, 청소년들이 각자 나무나 짚을 직접 가져오기도 한다. 이것을 언덕이나 산 위에 모아서 쌓기도 하고 조그만 오두막이나 커다란 다락같은 것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대보름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려 불을 지른다. 피어오르는 연기와 더불어 달을 맞고 빨갱게 불꽃이 피어오르면 신나게 농

악을 치면서 불이 다 타서 꺼질 때까지 춤을 추며 환성을 지르기도 한다. 달집 속에 대나무를 넣어서 그것이 터지는 폭음으로 마을의 악귀를 쫓는 곳도 있다. 대보름달은 풍요의 상징이고 불은 모든 부정과 시악을 살라버리는 정화의 상징이다. 달집이 탈 때 고루 한꺼번에 잘 타오르면 풍년, 불이 중도에 꺼지면 흉년이 든다고 판단하는 곳도 있다.

또 1년 더위를 이날 팔기도 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상대방이 대답하면 곧 ‘내 더위 사가라’고 한다. 이것을 매서(賣暑)라고 한다. 이렇게 하여 더위를 팔면 1년 동안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했다.

이외에도 대보름날에는 절식으로 약밥, 오곡밥, 알부림, 귀밝이술을 먹거나 벗가릿대 세우기, 복토 훑치기, 다리밟기, 나무 시집 보내기, 나무 아홉집 하기, 곡식 안 내기 등을 행하면서 풍년과 복을 빈다.

# 한국 불교의 승맥을 잇고 있는, 송광사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에 있는 조계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송광사는 보조국사 지눌스님, 진각스님 등 16국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고승대덕을 배출한 유서깊은 사찰이다. 특히 800여년전 보조국사 지눌이 당시 타락한 불교를 바로잡고 우리 불교의 전통을 새롭게 하기 위해 정혜결사(定慧結社)를 벌였던 도량이며 삼보사찰의 하나인 송보종찰이다. 통도사·해인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사찰로 꼽히는 절이다.

지금 남아 있는 기록에 의하면 송광사는 신라말 혜린(慧麟)선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한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송광산 길상사(吉祥寺)로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절이었다고 한다. 그 뒤 고려 인종 때 석조(釋照)대사께서 절을 크게 확장하려는 원을 세우고 준비하던 중 타계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50여년 동안 버려지고 폐허화된 길상사가 중창되고 한국불교의 중심으로 각광받게 된 것은 불일 보조국사 지눌스님의 정혜결사가 이곳으로 옮겨지면서 부터이다.

지눌스님은 9년(명종 27년 1197년 ~ 희종 원년) 동안 중창불사로 절의 면모를 일신하고 정혜결사운동에 동참하는 수많은 대중을 지도하여 한국불교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하였다. 이때부터 송광사가 한국불교의 중심으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정유재란, 6·25사변 등 숭한 재난을 겪었으나 지속적인 중창불사로 지금의 위용을 갖추 수 있게 되었다.

일주문을 거쳐 우화각에 접어들면 승보사찰의 위엄과 함께 아름다운 당우로 세속의 번뇌가 사라지고 불심으로 가득한 경건한 마음이 확 차오르는 듯 한다.

우화각으로 건너가기 전에 세월당과 척주

간이라는 건물 두 채가 있다. 죽은 영혼을 모셔 씻는 자리다. 그 곁에는 죽은 향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이름 하여 마른향나무(고향수·枯香樹)로 보조국사가 박아둔 지팡이가 자라다가 스님이 열반하면서 같이 죽었다는 전설이 깃든 나무다.

송광사의 절경 중에 하나가 바로 우화각(羽化閣)이다. 일주문을 들어서 대웅보전 경내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다리 위에 놓인 집이다. 우화각은 ‘깃털과 같이 몸이 가벼워진다’는 의미로 우화각을 받치고 있는 무지개 돌다리는 능허교(凌虛橋)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비우고 허공으로 건너 오르는 다리’라는 뜻이다. 능허교 아래에는 용이 물을 향해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이는 수살막이라 하여 물을 통해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왼편으로 두 발을 시원스럽게 물에 담그고 있는 건물이 임경당(臨鏡堂)이다. ‘거울 같은 물가에 임한 집’이라는 의미이다. 다리 오른쪽으로 길다랗게 서 있는 건물은 침계루(枕溪樓)라고 한다. ‘시내를 베고 누워 있다’라는 뜻이다. 송광사 당우 하나하나에 붙여진 이름의 뜻을 마음 속 깊이 세기 다보면 어느새 부처님 세상에 안기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이다.

관음전 뒤편의 가파른 계단 위에 서 있는



송광사 대웅보전

감로탑에 서면 송광사의 지붕선들이 한눈에 다 들어온다. 송광사에서 최고의 전망대라 할 만하다.

송광사는 우리나라 삼대 사찰 중에 하나인 승보사찰이다. 불교에서 부처님(佛), 가르침(法), 승개(僧)를 참으로 귀하고 값진 보물로 여기면서 삼보(三寶)라고 한다. 한국 불교에는 일찍부터 이 세 가지 보배를 가리키는 삼대 사찰이 있고 이를 삼보사찰(三寶寺刹)이라고 한다. 곧 경남 양산의 통도사, 경남 합천의 해인사 그리고 전남 순천의 송광사이다.

통도사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불보사찰(佛寶寺刹)이라 하

고, 해인사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만대장경의 경판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법보사찰(法寶寺刹)이라고 한다. 그리고 송광사는 한국불교의 승맥(僧脈)을 잇고 있기 때문에 승보사찰(僧寶寺刹)이라고 한다.

송광사는 총림으로도 유명하다. 총림(叢林)이 되기 위해서는 승려들의 참선수행 전문도량인 선원(禪院)과 경전 교육기관인 강원(講院), 계율 전문교육기관인 율원(律院)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송광사를 비롯한 해인사, 통도사, 수덕사 등 4곳과 1996년 3월 공식지정된 전남 백양사(白羊寺) 등 모두 5개만 있다. 현재 조계총림의 선원, 율원, 강원에서는 150여 명의 스님들이 모여 보조국사의 정혜결사



① 속세와 불계의 경계지점인 청량각 ② 송광사 일주문

정신을 이어 정진하고 계신다.

송광사는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목조삼존불감(국보 제42호), 혜심고신제서(국보 제43호), 고려고문서(보물 제572호), 경패(보물 제175호), 금동요령(보물 제176호) 등과 1093년 간행된 대승아비달마잡집론소(보물 제205호), 1095년에 간행된 묘법연화경찬술(보물 제206호)과 금강반야경소개현초(보물 제207호), 대반열반경소(보물 제90호),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삼현원찬과문(보물 제204호), 영산전목불좌상 등이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12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송광사에는 16국사를 상징하는 16암자가 있었다고 전한다. 하지만 현존하는 암자는 광원암·천자암·감로암·부도암·자정암(현재 佛日庵)·관와암(현재 印月庵)뿐이다.

현존 당우로는 대웅전·국사전(국보 제56호), 하사당(보물 제263호), 약사전(보물 제302호), 영산전(보물 제303호), 청량각, 적주각, 우화각, 천왕문, 해탈문, 대장전 등 대웅전을 중심으로 좌우, 앞뒤로 뻗어있는 50여 동의 전각은 대가람의 면모를 짐작하게 해준다.

### 송광사 가는 길

**대중교통**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송광사행 직행버스 또는 순천시내에서 송광사행 좌석버스 이용, 순천공용정류장에서 송광사행 시외버스 이용 **승용차** 88고속도로(또는 남해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송광사나들목(주암) 우회전→보성방면 27번 국도→주암호반도로→송광사

# 사랑을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해오름 요양원 요양보호사 **윤정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을의 나뭇잎이 내려앉아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더니  
오늘 아침 찬바람에 단풍나무 가지마저 흔들리며  
눈 발이 날리고 동장군의 기세로 꺾바람마저 시리다.  
차창을 열고 바라보는 범이산의 산행길, 수성못 가로변의 뱃나무  
남편과 함께 조깅하며 흘린 수많은 땀의 흔적이 녹아내린  
수성못 돌레길이 차창 밖에서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다.

어제 감기 기운이 있던 울릉도 할머니는 밤새 잘 주무셨는지  
고래 고래 고향을 치시며 빵 달라고 깔치시던 할아버지  
밤새도록 잤은 욕설로 스트레스를 푸는 이쁜 할머니는  
출근길 아침이면 힘차게 시작하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  
어르신들의 모습이 그림첩처럼 펼쳐지며 해오름요양원에 이른다.

해오름요양원 어르신들과 인연을 맺은 지도 석 달이 넘어가고 있다.  
모든 어르신들이 타인의 손길로 채워주어야만 하는 상황  
작은 관심과 다정한 대화 한마디에도 얼굴에 미소를 띠며 고마워하는  
순백색의 도화지 같은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이나,  
자아에 의한 제어가 어렵고 불편하신 어르신들,



불과 8개월 전 치매로 5년간의 긴 요양원 침대생활을 정리하시고  
부처님 곁으로 가신 아름다우셨던 엄마가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겹쳐진다.  
말씀도 못하시고 표현도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태였지만  
사랑으로 함께한 시간 뒤에 엄마는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신 듯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를 보내주곤 하셨다.

지금 어르신들에게도 일상의 사소한 움직임속에 가족을 대하듯  
사랑이 담긴 마음에서 관심어린 눈길과 따사로운 손길을 보내드린다면  
아마도 행복해 하지 않으실까?

표현을 못하시든 부자연스러운 서툰 행동이든 미안해요, 고마워요,  
늘 곁에서 함께 해주어 너무 너무 감사해요, 하지 않으실까?  
언제까지라도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작은 손길 하나에도 불편하셨던  
엄마를 생각하며 도움이 되고 사랑받는 자식이 되어 드리는 일에  
부끄럼이 없기를 원한다.

요즈음 베스트셀러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이런 글이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면 할수록 관계는 틀어지고 나로부터 도망가  
려 한다.”

가슴에 새겨두고 지켜야 할 명언이다.

어르신들을 대하는 마음 자세에 딱 맞는 말이 아닌가.

나에게 맞추지 말고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눈높이를 맞추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다.”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이는  
청마의 ‘행복’을 읊조리며 유리문을 밀고 들어선다.  
그리고 또 힘찬 하루가 시작된다.

멀지않은 곳에서 고향소리가 들린다.

어느 분인가 사랑이 담긴 손길을 원하고 있나 보다.



# 법왕사 소식

##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법왕사에서는 오는 2월 24일 계사년 정월 대보름에 법왕사 광장에서 달집태우기 및 소원 성취 기도법회를 병행합니다.

계사년 한해 마음에 담고 있는 소원을 편지지에 적어 성취를 기원하고 액난소멸을 발원하는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입춘 맞이 향일암 선상 방생법회



법왕사에서는 오는 2월 19일 여수 향일암에서 선상 방생법회를 병행합니다. 이번 방생법회는 여수 돌산대교 아래 바다 선상에서 방생법회를 하고 관음성지 향일암을 참배하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매월 양력 초하루 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계사년을 맞이하여 매월 양력 초하루, 음력 초하루 법회를 병행합니다. 전통적으로 사중에서는 음력을 기준으로 초하루, 보름과 각종 재일에 불공을 올리고 법회를 해왔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일력이 양력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어 법왕사에서는 이같은 추세에 발맞춰 양력 초하루에도 법회를 병행하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부처님 성도재일 특별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1월 19일 부처님 성도재일을 맞이하여 본원스님을 초청, 특별법회를 병행했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1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토굴에서 용맹정진 중인 본원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성도재일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각에 이르러 비로소 부처님이 되신 날로 불교의 큰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 불교대학 초중급 주야간 모집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법왕불교대학에서는 초중급 과정 주야간반을 모집합니다. 현재 중급반은 해능스님의 입보살행론 강의를 진행 중이며 초급반은 기초교리, 사찰예절, 기초경전 등 불자로서 갖춰야 할 기초적인 내용을 주지스님 직강으로 개설하오니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주위에 많이 권선하시기 바랍니다.

## 계사년 정초 7일간 화엄신중 기도 봉행

법왕사에서는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초에 7일간 화엄신중 기도와 선상 방생 대법회를 병행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한해를 불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화엄신중 기도를 올립니다. 정초 7일간 기도는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량한 가피가 될 것입니다.

법회를 회향한 후에는 2월 19일 여수 향일암에서 선상 방생법회를 병행합니다. 이번 방생법회는 여수 돌산대교 아래 바다 선상에서 방생법회를 하고 관음성지 향일암을 참배하게 됩니다.

# 법왕사 게시판

## ● 새법우 명단

동 구 유환덕 장익분 유대경 유재우  
 북 구 최삼철 신강미 최유정 최수지 최윤석  
 최명철 김유경 최진석  
 수성구 이경우 이지은 이동익 김경일

법왕사의 새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복덕이 넘치는 신행생활 하시기 기원합니다.

## ● 새롭게 평생위패 모신 분

간염부 경주후인 김공인식 영가(김상의 복위)  
 간염부 밀양후인 박소성규 영가(박중헌 복위)  
 간자모 안동유인 김氏덕희 영가(최규환 복위)  
 간자모유인 김氏은조 영가(정종영 복위)  
 간염부 안동후인 권공태익 영가  
 간자모 양근유인 김氏신녀 영가(권영세 복위)  
 간염부 달성후인 서공용호 영가(서광우 복위)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 ● 대작불사 도움주신 분

권오국 100만원 김오현 200만원  
 권오삼 400만원 장지영 100만원

이상 동참해 주신 불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 새로이 원불 봉안하신 분

3328 亡천명창(아미타불)  
 3329 亡조옥선(약사여래불)  
 3330 권혁일(관세음보살)  
 3331 전숙환(관세음보살)  
 3332 장재혁(지장보살 중불)  
 3333 장재봉(지장보살 중불)  
 3334 최정심(지장보살)

동참하신 불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각자 모신 원  
 불의 가피가 무량하기를 기원합니다.

## ● 본당 운각 불사 동참자 명단

유청일 강소남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여법한  
 도량을 장엄하는 일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 ● 법당 1년등(가족) 대신 분

49 이희동 50 박우홍 51 변영구 52 이범일  
 53 이원석 54 이순남 55 이강복 56 신명철  
 57 최경철 58 권상태 59 이상열 60 우영근  
 61 함지훈 62 최일국 63 안희우 64 신창진  
 65 김팔경 66 김태환 67 정화권 68 서병선  
 69 정연국 70 정연직 71 정연목 72 정연석  
 73 류준화 74 변정연 75 권혁진 76 이상태  
 77 박찬우 78 이성락 79 김중태 80 류현필  
 81 임귀연 82 최임환 83 조춘권 84 배해동  
 85 이명훈 86 조분기 87 김철환 88 김상윤  
 89 최상홍 90 이수정 91 신구자 92 정춘화  
 93 이승재 94 신종호 95 박영승 96 이종량  
 97 김윤조 98 김일곤 99 조영석 100 광영숙  
 101 정영석 102 강병주 103 우종원 104 김중열  
 105 최운기 106 권상길 107 주재열 108 홍승규  
 109 신민호 110 손민상 111 김봉조 112 신강욱  
 113 박종민 114 박종철 115 이기서 116 권기욱

하나의 인등이 세상을 밝힙니다. 정성이 담긴 등을  
 밝혀 지혜, 복덕, 수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 새롭게 법당인등 모신 분

741 이정철 742 이윤숙 743 이동규  
 744 이석규 745 최문희 746 이준범  
 747 이준민 748 권지현 749 전기준  
 604 김봉조 605 이정화 606 김현숙  
 607 김창용

하나의 인등이 세상을 밝힙니다. 정성이 담긴 등을  
 밝혀 지혜, 복덕, 수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 새롭게 산신인등 모신 분

506 최성빈 508 손호익 509 김외환  
 510 김주현

하나의 인등이 세상을 밝힙니다. 정성이 담긴 등을  
 밝혀 지혜, 복덕, 수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법왕사 게시판

## ● 법당(천수천안 관음보살 입상 좌우) 꽃등 대신 분

박동근 정현균 백상현 조민규 문지수  
문선재 백해진 최동욱 전숙환 김상한  
백대행심

## ● 법당대등 대신 분

박동근 백경원

## ● 사보 도움주신 분

이재왕(300부) 이화꽃집(100부) 법화심(200부)

## ● 돼지저금통 회향하신 분

최경술 문소연 문승준 양혜영 권혁만

## ● 백팔통장 회향하신 분

구실상화

## ● 공양미 보시하신 분

장우성 김옥희

## ● 성도재일 공양

정민경(20만원) 정시영(5만원) 김순재(2만원)  
박정순(2만원) 김상한(5만원)

## ● 신장재일 공양

김지열 권숙자 김상한(떡공양)

## ● 설판 보시하신 분

구실상화(설판 10만원, 식품 5만원)

## ● 떡공양

김상수 신민호 정시영 권혁일 최재훈  
이재왕

## ● 대중공양

우성록(2만원) 김유청(3만원) 김옥희(직접)  
박상익(20만원) 정미경(5만원)

## ● 경로잔치 도움주신 분

권보형(2만원)

## ● CMS 접수하신 분(12/15~12/31)

한평불사	김의환 2만원	서필희 1만원
인 등	강춘희 2만원	김명숙 1만 5천원
	김영희 2만원	노경정 2만원
	신인숙 5천원	이숙희 1만 5천원
	이숙희 2만원	이승일 2만원
	전재필 5천원	전재호 1만원
	한천숙 1만원	홍경숙 1만원
	황국희 2만 5천원	
초하루, 축원	박정순 2만원	김지연 3만원
	나형진 2만원	손향숙 2만원
	송애자 2만원	전태일 4만원
	진영덕 2만5천원	
108석등	문영자 2만원	이정연 2만원
	이창형 3만원	현미숙 3만원
원불봉안	김옥자 1만원	양수한 4만원
	이현숙 4만원	최유자 3만원
	김금순 4만 5천원	김점숙 2만원
	이호진 1만원	
산신인등	양미경 5천원	전성목 1만원
평생위패	고연숙 10만원	
기 타	김שמ미 5천원	김수정 1만원
	김연자 1만원	김재현 1만원
	백춘자 5만원	서상태 2만원
	송순분 2만원	이관수 2만원
	전광환 1만원	정영미 5천원
	정영석 5만원	조경희 5만원
	주석순 5천원	채영주 2만원
	황금석 7천원	

## 왕생극락 하옵소서

- ◎ 정성웅 범우님의 자모孺人 경주 김氏 은조 영가님의 초재가 1월 10일에 있었습니다.
- ◎ 서광우 범우님의 엄부後人 달성 서公 용호 영가님의 초재가 1월 18일에 있었습니다.
- ◎ 김영도 범우님의 엄부後人 김해 김公 종수 영가님의 막재가 1월 16일에 있었습니다.
- ◎ 조성우 범우님의 엄부後人 평산 신氏 상계 영가님의 초재가 1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 작은 행복 봉사



봉사 단체 작은 행복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팀장 홍말희님과 회원 장영대님, 양재원님, 임정희님이 해오름요양원에 찾아주시고 청소와 어르신 말벗 그리고 식사수발까지 봉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혜능스님 초청 입보살행론 특강 개최

법왕사에서는 혜능스님(전 해인사 울원장)을 모시고 '입보살행론' 강좌를 개최합니다. 법왕불교대학 중급반 특강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법왕사 복지관 대법당에서 열리는데 선착순 50명만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입보살행론'은 7세기 무렵 인도의 불교학자 산티데바가 저술한 보리심에 대한 광범위한 이론서로 심도 있는 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에게는 필독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강좌를 맡은 혜능스님은 복인도 다람살라에서 티베트 밀교학을 연구하고 울산의 람림학당에 주석하고 계십니다. 또한 스님은 법왕사 백교좌법회에 매년 빠지지 않고 법문을 하고 있어 법왕사 불자들과도 매우 친숙하시며 이번 강좌는 '입보살행론'을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문의 법왕사 중무소 053-766-3747



# 해오름 게시판

## ●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12월)

### ◎ 수입내역

안경순 1만원	장인숙 5천원	권오성 1만원
강태출 5천원	박태숙 5천원	박창목 5천원
이현우 1만원	박홍상 2만원	이은주 2만원
문정애 2만원	신해경 5천원	최향정 1만원
류윤만 5천원	노귀자 5천원	이정옥 1만원
정무시 1만원	김영주 5천원	김정임 1만원
권숙자 1만원	현영희 1만원	강영도 2만원
묘도스님 1만원	심규암 5천원	김정자 5천원
김기수 2만원	구정대 2만원	권계화 1만원
장우성 1만원	김정순 3만원	정규성 1만원
이남희 1만원	안상준 2만원	강소남 5천원
박원태 1만5천원	김유진 1만원	유명옥 1만원
김기덕 2만원	이임숙 2만원	손귀옥 1만원
장익분 1만원	이동식 1만원	이은희 5천원
사공관 1만원	이점례 5천원	이성자 5천원
채옥연 5천원	배수현 2만원	신돈식 2만원
여택동 5천원	최학영 10만원	이종희 5천원
김순란 3만원	신구자 5천원	조영석 1만원
박학순 1만원	조용수 1만원	김정희 1만원
윤순희 1만원	김미옥 2만원	김수라 1만원
최분규 1만원	양나영 5천원	정광춘 5만원
고재명 3만원	안명희 1만원	황미선 2만원
현인숙 1만원	노수정 1만원	김순태 1만원
김민주 1만원	예금이자 160원	

합계 850,240원

### ◎ 지출내역

- CMS자동이체 수수료	5,995원
- 의약품 구입	71,500원
- CMS자동이체 수수료	3,245원
- 종량제봉투 구입	27,600원
- 어르신부식 구입	56,910원
- CMS자동이체 수수료	10,340원

12월 총 사용내역 175,590원

잔액 774,650원 (2012년 12월말 기준)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양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녹색환경연합 봉사단 40여분이 해오름요양원에 오셔서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 해오름요양원 개원 당시부터 봉직하신 이동식 사무국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사임하시고 경남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동식 국장님께서 해오름요양원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 드리며 앞날에도 불보살님의 가피가 무량하기를 법양사 불자들은 기원드립니다.

◎ 강선옥 법우님께서 이동식 사무국장의 후임으로 지난 1월 28일 부임하셨습니다. 강선옥 국장님의 부임을 법양사 불자들은 크게 환영하며 오래 오래 봉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해오름요양원 새가족

### 이분엔 어르신

※ 어르신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 해오름 게시판

## ● 영양원 입소 안내

- ◎ **입소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  
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3등  
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 전화를 주시면 입소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053)766-5767)
-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 후원안내

**금품후원** 대구은행 505-10-119877-1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 : 부식류, 생활용품 등

####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  
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 장례의 모든 절차를 책임지는 한국장례문화연구회

갑자기 닥친 흉사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장례문화연구회에서는  
불자님들의 갑작스러운 흉사에 대비해서 장례식장(병원) 알선, 화장 예약, 묘지 조성(공원묘지,  
풍수지리, 이장 등)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도와 드립니다.

장례 기간 동안에는 지도사를 3일 동안 무료로 파견하고, 도우미 2명도 3일간 지원하며, 운구  
전용차량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회원가입(가입비 10만원)은 법왕사 중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례문화연구회

Tel. 053-795-4444

HP. 011-506-6237

Fax. 053-795-4444

E mail. chchy0900@naver.com

※ 24시간 대기(차량, 장례지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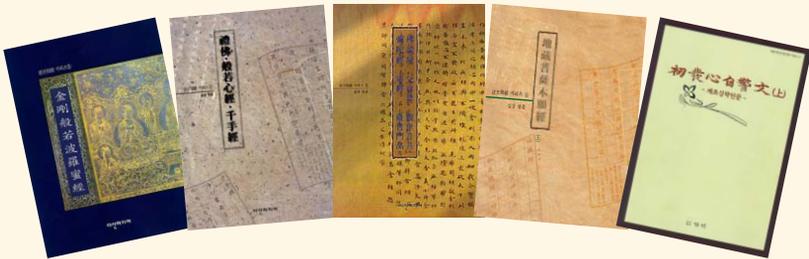


# ‘묘법연화경’ 사경집, 일자 사경집, 신묘장구대다라니 사경집 발간



법왕사 사경집 ‘묘법연화경’ 전 8권과 일자 사경집, 신묘장구대다라니 사경집이 발간되었습니다. 묘법연화경 사경집은 법화경 28품 전권과 법화경 약찬계를 수록하고 독음과 해설을 붙여 한자의 음과 뜻을 확실히 알고 베껴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한 장제본으로 꾸며 책의 품위를 더하여 소장가치도 높습니다. 일자 사경집은 모필체의 한자를 한자씩 따라서 쓸 수 있도록 하여 사경의 본래 의미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자들이 늘 봉송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108회 사경할 수 있는 일자 사경집도 발간하였사오니 수행정진에 큰 보탬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법왕사 사경집 시리즈 안내



- 법왕사경 시리즈 ① 금강반야바라밀경
- 법왕사경 시리즈 ② 예불·반야심경·천수경
- 법왕사경 시리즈 ③ 아미타경·부모은중경·관세음보살보문품
- 법왕사경 시리즈 ④ 지장보살본원경(上·中·下)
- 법왕사경 및 한자공부 시리즈 ① 초발심자경문(上)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법보사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 법왕사 오시는 길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천대로→신천좌안도로→법왕사로 오시던 길이 공사로 인해 이용하실 수 없게 된 관계로 **신천대로→상동교→수성못오거리→용두교→법왕사**로 이용을 바랍니다.

가창방면에서 신천좌안도로를 이용해 오시는 법우님들은 **상동교**에서 **유턴**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비게이션으로는 '파동초등학교'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신천대로 상동교, 신천동로 상동교, 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 아파트, 수성못, 수성중학교, 파동초등학교, 용두교, 수성못오거리, 애망원, 애활원, 송원아파트, 법왕사, 우회도로, 공사중

## 신행단체 모임안내

신 장 회 매월(음) 10일 오전 10시

산신기도회 매월(음) 16일 오후 4시

관 음 회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선우회(참선반) 매일 오후 7시~9시 주말 자유정진

인 등 회 매월(음) 15일 오전 10시

지 장 회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합 창 단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사 물 놀 이 매주 월, 목요일 오후 2시

# 계사년 정초 7일간 화엄신중 기도 및 선상 방생 대법회

새해를 맞이하면 한해동안 불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화엄신중 기도를 올립니다. 이에 법왕사에서서는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초에 7일간 화엄신중 기도와 선상 방생 대법회를 병행합니다.

법회를 회향한 후에는 2월 19일 여수 향일암에서 선상 방생법회를 병행합니다. 이번 방생법회는 여수 돌산대교 아래 바다 선상에서 방생법회를 하고 관음성지 향일암을 참배하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정초 7일간 화엄신중 기도

일 시 음력 1월 3일 ~ 9일  
양력 2월 12일 ~ 18일

## 향일암 선상 방생 대법회

일 시 2월 19일(화)  
출 발 오전 8시 법왕사 주차장  
코 스 대구 - 돌산대교 - 선상방생  
법회 - 향일암 참배  
동참금 1인 3만 5천원



## 정월 대보름 삼재기도 회향 달집 태우기

법왕사에서 오는 2월 24일 계사년 정월 대보름에 법왕사 광장에서 달집태우기 및 소원성취 기도법회를 병행합니다.

계사년 한해 마음에 담고 있는 소원을 편지에 적어 성취를 기원하고 액난소멸을 발원하는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 시  
2월 24일 오후 6시

장 소  
법왕사 종합복지관 광장

해당띠 돼지, 양, 토끼  
준비물 쌀 3되 3흙,  
나이수만큰 동전,  
속옷

동참금 1인 3만원



계사년 매월 양력 초하루, 음력 초하루 법회 병행합니다.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8747 F. (053)767-6095